‘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건설현장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활동 본격 추진

최근 대형건설현장의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및 예방활동에 나섰다.

최근 대형건설현장의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및 예방활동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직무대리) 배지연)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따른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관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개소(제조·기타업종 374개소, 건설업종 16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따.

특히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점검 및 관리 대상으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유형별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선정하고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게 되는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안전사고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작지마을’ 보상 박차

시,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위한 토지 보상 절차 연내 마무리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핵심 선행 절차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부지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법무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현 전주교도소 건너편)에 공사비 35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전체 부지(총 12필지 1만9504㎡)의 약 84%(9필지 1만63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나머지 3필지(3128㎡)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신속히 부지 확보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되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결을 완료해 보상 지연을 최소화하고, 올해 안에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한 뒤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최우수’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이 지역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교육생이 ‘2025년 호남 IS(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열렸으며,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호남권(전북·광주·전남·제주)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산업 적용 △성장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교육생을 발굴·시상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8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생 출신인 이충현 교육생과 박근호 교육생이 나란히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상임이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6일간이며 상임이사 임기는 3년이다.

정원은 총 2명으로 현재 1자리가 공석으로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경영본부장과 시설본부장 직무를 각각 겸임하고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정부 투자기관·지방 공사·공단에서 공무원 5급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 경영 또는 공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에서 경영 관련 분야 부교수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위에서 연구했거나 근무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인후1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폭염으로 멈췄던 ‘시민과의 대화’ 재개

우범기 전주시장, 인후1동서 추진 사업 공유 · 주민 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은 혹서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췄던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우범기 시장은 19일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인후1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인후1동은 1만 6900여 명이 거주하는 전주 동부권의 중심지이자, 완주와 진안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4년차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등 전주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우 시장은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후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인후공원 일대 부지 활용 △노후 아파트 단지 개선 등 인후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우 시장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아 참석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인후1동 주민들의 동에 대한 애정과 전주의 발전에 대한 깊은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만경강~백석제 구간 생태탐방로 조성 본격화

전주 북부권에 생태보고인 만경강과 에코시티 인근 백석제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전주시는 도심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만경강~백석제 구간(약 12.2㎞)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도보로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길로,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조성·관리하는 국가급 탐방 인프라이다.

시민이 가치 있는 생태자원과 생태적 배경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걷기와 감상, 학습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추진되는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에는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나머지 시비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만경강~전주천~백석저수지~세병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전주 북부권의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전주가 대한민국 생태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